

오늘을 적시하고 내일을 여는 '성남일보 | 뉴스데이'

성남문화재단 '몸집 불리기'...'제동'

이종덕 상임이사 방만 경영 인정 ... 혁신적 조직 개편 선언

김용환 VJ webmaster@snlbo.co.kr

출범 이후 방만한 경영과 지역사회와의 소통부족으로 끊임없이 비판을 받아 온 성남문화재단이 대대적인 조직개편에 돌입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성남문화재단 이종덕 상임이사는 4일 오전 제3대 상임이사 취임과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그동안 비판을 받아 온 성남문화재단의 방만한 경영 등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 성남문화재단의 방만한 운영에 대한 비판에 대해 인정하는 이종덕 상임이사. © 성남일보

이 상임이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성남문화재단 3기 연임을 하면서 느낀 것도 많다”면서 “방만한 예산 쓰고 방만한 운영한 것에 대해 연임을 계기로 혁신적으로 조직을 개편하고 기구도 축소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 상임이사는 성남문화재단이 방만한 경영을 해 온 것에 대한 비판을 의식한 듯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예산의 절약과 조직의 개편, 전 직원의 혁신적 마인드로 무장할 것이라고 말해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이뤄질 것임을 암시했다.

이 상임이사는 외부의 비판적 시선을 의식한 듯 성남문화재단의 활동에 대해 “모두를 발개 벗고 보여주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어 설명에 나선 노재천 문화사업국장은 끊임없이 정체성 논란을 벌여 온 탄천페스티벌축제에 대해 외국 공연팀 공연은 제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노 국장은 46개 주민자치센터 등이 참여하는 시민참여형 프로그램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도 진지한 검토를 하겠다고 밝혀 탄천페스티벌의 정책전환을 암시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 성남문화재단은 이종덕 상임이사의 3기 연임을 계기로 지역밀착형 공연

장으로 거듭나기, 경영의 혁신을 통한 자립초석 마련, 각종 규제 철폐와 절차의 간소화로 내집처럼 이용하는 아트센터, 성남탄천페스티벌의 재창조 등 4대 역점사업을 제시했다.

기사입력시간 : 2008년 12월05일 [20:02:00]